2023 추석
가정예배순서지

묵　　도 ---------- 다 같 이

신 앙 고 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다 같 이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봉 독 ---------- 시편 30:1~12 ---------- 인 도 자

설　　교 ---------- 슬픔을 기쁨으로 ---------- 인 도 자

찬　　송 -----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폐　　회 - 가족과 나눔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이 이뤄지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함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1.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급을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심각한 결핍에 놓인 인간은 죽음의 수렁에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 대신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나 슬픔과 고난에 놓여있습니다. 그 슬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슬픔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려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